

GS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2025. 04. 24. — 06. 29.



GS Arts Center Opening Festival
2025.04.24. — 06.29.

4월

5월

6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클래식에서 컨템포러리까지》
American Ballet Theatre
From Classic to Contemporary
4. 24. — 4. 27.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 마르코스 모라우 《아파나도르》
Ballet Nacional de España / Director Rubén Olmo
Afanador / Marcos Morau
4. 30. — 5. 1.

윌리엄 켄트리지 《시빌》
William Kentridge *Sibyl*
5. 9. — 5. 10.

라 베로날 컴퍼니 & 마르코스 모라우 《죽음의 무도: 내일은 물음이다》
La Veronal & Marcos Morau
Totentanz—Morgen ist die Frage
5. 17. — 5. 18.

라 베로날 컴퍼니 & 마르코스 모라우 《파시오나리아》
La Veronal & Marcos Morau
Pasionaria
5. 16. — 5. 18.

GS아트센터 × 서울재즈페스티벌
《브래드 멜다우, 크리스천 맥브라이드, 마커스 길모어》
GS Arts Center × Seoul Jazz Festival
Brad Mehldau, Christian McBride, Marcus Gilmore
5. 20.

GS아트센터 × 서울재즈페스티벌 《팻 메시니 드림 박스 / 문다이얼 투어》
GS Arts Center × Seoul Jazz Festival
Pat Metheny Dream Box / MoonDial Tour
5. 23. — 5. 25.

윌리엄 켄트리지
《쇼스타코비치 10: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더라면》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 로더릭 콕스)
William Kentridge
Oh To Believe in Another World: Shostakovich 10
5. 30.

GS아트센터 × 국립발레단 《킬리안 프로젝트》
GS Arts Center × Korean National Ballet
Kylian Project
6. 26. — 6. 29.

26 27 28 29

GS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2025. 04. 24. — 06. 29.

GS Arts Center Opening Festival
2025. 04. 24. — 06. 29.

GS아트센터는 예술의 힘, 예술가의 상상력과 관객의 호기심을 빌려
시간을, 공간을,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선들을 연결합니다.

GS아트센터 개관 & 예술가들 시리즈 소개



“예술가들” 시리즈

GS아트센터는 동시대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예술 경험을 연결·확장해 온 창작가들을 선정, 이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 “예술가들”을 선보입니다.

2025년에는 오래 전 이야기에서 받은 영감을 새로운 이야기로 써 보이며
과거와 우리를 연결하고 장르와 장르를 이어주는 두 명의 스토리텔러, 윌리엄
켄트리지와 마르코스 모라우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예술 형식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방위 예술가들이자,
독특한 무대 이미지 연출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들이며
사소한 것에서 비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상상가이기도 합니다.

공연장 안팎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전시, 글과 영상 등 입체적 예술 경험에 참여할
경계 없는 관객을 기다립니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클래식에서 컨템포러리까지

개관 공연

American Ballet Theatre
From Classic to Contemporary

일시 Date & Time	04. 24. 목 Thu 19:00 * 행사로 인한 좌석 미판매
	04. 25. 금 Fri 19:30
	04. 26. 토 Sat 14:00 / 19:30
	04. 27. 일 Sun 15:00
가격 Ticket price	VIP 250,000 R 220,000 S 180,000 A 140,000 B 70,000
시간 Duration	약 120분 (회차별 상이)
연령 Age guidance	초등학생 이상

당신이 몰랐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의 오늘은, 발레계의 오늘이자 미국 사회의 오늘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별들이 GS아트센터의 첫 무대를 연다. ABT는 '발레계의 할리우드'라 불릴 만큼 개성과 스타성, 최고 기량을 겸비한 무용수들뿐 아니라, 창단 이후 고수해 온 발레계 '다양성'의 실천으로도 유명하다. 다양한 인종과 젠더, 배경의 무용수와 창작자들이 뒤섞여 ABT만의 미학을 만들었고, 발레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창작자들의 요람이 되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해 당대 안무가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수많은 작품을 초연하며, 20세기와 21세기 무용사의 흐름을 이끌어 왔다.

13년 만의 내한 공연에서는 이러한 ABT의 면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조지 발란친, 트와일라 타프의 레퍼토리부터 카일 에이브러햄, 제마 본드의 신작까지, 고전과 모던, 컨템포러리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사회, 안주원 등 한국 무용수들을 비롯, 수석 무용수가 대거 출동하여 화려한 무대로 새 공연장의 출발을 축하한다.

제작 및 공연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예술감독: 수전 재피)

일차별 프로그램

04. 25. (금) 19:30 "Iconic & Innovation Works"

1부: 조지 발란친 안무 (Theme and Variations)
(1947, ABT 세계 초연)

2부: 카일 에이브러햄 안무 (Mercurial Son)
(2024, ABT 세계 초연)

3부: 트와일라 타프 안무 (In the Upper Room)

04. 26. (토) 14:00 "Versatility and Virtuosity"

1부: 제마 본드 안무 (La Boutique)
(2024, ABT 세계 초연)

2부: 2인무 갈라 시리즈

3부: 트와일라 타프 안무 (In the Upper Room)

American Ballet Theatre (ABT) is renowned for its world-class dancers of exceptional skill, artistry, and personality. As America's National Ballet Company, it embodies a unique aesthetic based on the values of versatility and dynamic harmony. Under Artistic Director Susan Jaffe, the spirit of originality and innovation has intensified, aligning with the present state of both the art form and American society.

The original works of ABT have shaped the history and trajectory of dance in the 85 years since the Company's inception. This coming April in Seoul, iconic moments of the American dance scene, of which ABT is a crucial part, will be presented on stage. Ranging from George Balanchine, the most influential choreographer of the 20th century, to contemporary visionaries Twyla Tharp, Alexei Ratmansky, Kyle Abraham, and Gemma Bond, these performances will showcase ballets of an exciting and wide-ranging variety of classic, modern and contemporary styles.

04. 26. (토) 19:30 "From the Classics to the Contemporary"

1부: 조지 발란친 안무 (Theme and Variations)

2부: 2인무 갈라 시리즈

3부: 카일 에이브러햄 안무 (Mercurial Son)

04. 27. (일) 15:00 "Versatility and Virtuosity"

1부: 제마 본드 안무 (La Boutique)

2부: 2인무 갈라 시리즈

3부: 트와일라 타프 안무 (In the Upper Room)





195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출생

드로잉, 필름, 조각, 연극, 오페라,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흡수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양식을 선보이는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가. 짐짓 단순해 보이는 작품에는 차별이 만연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권변호사의 아들로 성장한 유년 시절이 배어 있고, 삶의 불확실성과 모순을 끌어안은 거장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등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지웠다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며 생기는 역동적인 드로잉 기법을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다층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켄트리지 특유의 예술 양식으로 발전시킨다. 여기에 연극, 무용 등 라이브 퍼포먼스 요소까지 접목하며, 장르의 경계를 지운, 한층 더 확장된 예술 세계를 열었다.

| 예술가들 패키지 ㄱ p. 28

| 윌리엄 켄트리지 패키지 ㄱ p. 28



윌리엄 켄트리지 시빌

일시 Date & Time	05. 09. 금 Fri 19:30
	05. 10. 토 Sat 14:00 / 19:00
가격 Ticket price	R 120,000 S 90,000 A 70,000 B 40,000
시간 Duration	85분 (휴식 1회)
연령 Age guidance	10세 이상

“윌리엄 켄트리지는 미래를, 눈이 부시게 펼쳐낸다

William Kentridge blows up the future, in spectacular style”

— The Telegraph

선을 지우는 세기의 거장, 윌리엄 켄트리지
검검이 쌓이며 회전하는 시간과 예술, 그리고 우리의 삶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 하나에 역사와 기억, 사회와 개인을 모두 담아내는 웅숭깊은 통찰력의 예술가. 장르 간 선을 지우며 예술 경험을 확장해 온 우리 시대의 거장, 윌리엄 켄트리지. 〈그 순간은 흘러져 버렸다〉와 〈시빌을 기다리며〉, 두 작품으로 구성된 〈시빌〉은 음악, 연극, 무용, 문학부터 드로잉 애니메이션, 영상, 조각까지, 켄트리지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집약된 작품이다. 쿠마에의 무녀 시빌 이야기를 소재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아름다운 은유와 매혹적인 이미지로 풀어낸다. 작품의 시작점이었던 칼더의 회전하는 모빌과 같이 시간도, 예술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도 끊임없이 돌고 돈다. 무녀 시빌의 예언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자신의 운명이 적힌 앞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광경에 망연자실한 쿠마에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도 깊이 겹쳐 보인다. 그 어느 작품보다 “예술은 불확실성을 지켜야만 한다”는 켄트리지의 말과도 마주 닿아 있다.

1부: 그 순간은 이미 흘러져 버렸다

2부: 시빌을 기다리며

William Kentridge insightfully portrays history, memory, society and the individual in a piece of charcoal animation, marked by relentless drawing and erasing. The multi-layered art of Kentridge, a masterful figure of our age who has been expanding artistic experience while blurring the boundaries of visual art, video film and performance, is introduced as part of the Artists series.

Acclaimed as Kentridge at his best, *Sibyl* consists of two works: *The Moment Has Gone*, a short film with live piano score and chorus, and *Waiting for the Sibyl*, a visually stunning chamber opera. As the artist said, “Art must defend the uncertain,” *Sibyl* shows our unpredictable future in beautiful metaphors and enchanting images. Just as Alexander Calder’s turning mobile—the starting point of the piece—implies, time, art and our anxiety for an unpredictable future repeat in endless cycles.

컨셉 및 연출
윌리엄 켄트리지

음악
은란라 말랑구, 카일 셰퍼드

William Kentridge
Sibyl

윌리엄 켄트리지

쇼스타코비치 10: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더라면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 로더릭 콕스)

일시 Date & Time	05. 30. 금 Fri 19:30
가격 Ticket price	R 100,000 S 80,000 A 40,000
시간 Duration	60분 (휴식 없음)
연령 Age guidance	초등학교 이상

“눈부시고 오묘하며 전복적이다
dazzling, sly and subversive”

— The New York Times

미디어의 역사 그 자체, 윌리엄 켄트리지의 시선으로 보고 듣는 쇼스타코비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방위 예술가 윌리엄 켄트리지는 시각예술 작업뿐 아니라 쇼스타코비치의 〈코〉, 베르크의 〈룰루〉, 〈보체크〉 등 오페라 연출가로도 명성이 높다.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더라면〉은 오케스트라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0번 연주와 그의 손끝으로 탄생한 영상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무대다. 켄트리지는 카메라의 시선을 빌려 레닌, 스탈린 등 독재자들의 시대에 쇼스타코비치로 대표되는 예술가의 삶을 조명한다. 사람이 직접 읽는 인형, 판지로 만든 미니어처 세트, 콜라주 작업 등 특유의 예술 양식이 음악과 결합되어 익숙한 교향곡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국내 초연하는 무대로 클래식계 편견을 깬 흑인 지휘자이자 무서운 행보를 보이는 36세의 ‘개척자’, 로더릭 콕스가 호흡을 맞춘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술가를 연결하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A multi-sensory artist and global creative powerhouse, William Kentridge is also a widely renowned opera director who staged Shostakovich's *The Nose* and Berg's *Lulu* and *Wozzeck*. *Oh To Believe in Another World* is an excellent blend of Kentridge's animation with Shostakovich's *Symphony 10*, his first release since the death of Stalin, showing the boundless artistry of Kentridge that has evolved alongside the media history.

After being performed by prestigious orchestras around the world, *Oh To Believe in Another World* will be premiered in Korea with the performance by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conducted by the pioneering 36-year-old Roderick Cox. The piece allows us to witness the artistry that constantly evolves,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
로더릭 콕스

William Kentridge
Oh To Believe in Another World: Shostakovich 10



198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생.

장르적 관습을 부수고 뒤섞어 독특하고 초현실적인
상상의 풍경을 그려내는 스페인 출신의 안무가.
2004년 라 베로날 컴퍼니를 창단,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해 왔다. 추상적인 움직임과 피지컬 시어터, 사진,
영화, 이미지 등이 한데 뒤섞인 모라우의 세계에서는 정체를
특정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뛰어놀고, 익숙한 사물이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하며, 움직임과 이미지가 충돌하고
어우러진다.

현재 유럽 공연계에서 가장 뜨거운 아티스트답게,
세계 유수 무용단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서도
젊은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 예술가들 패키지 ㄱ p. 28

| 마르코스 모라우 패키지 ㄱ p. 28



“새로운 우주 A new universe”
— Gran Teatre del Liceu

Afanador ©Merche Burgos

라 베로날 컴퍼니 & 마르코스 모라우
파시오나리아

일시 Date & Time	05. 16. 금 Fri 19:30
	05. 17. 토 Sat 14:00
	05. 18. 일 Sun 15:00
가격 Ticket price	R 80,000 S 60,000
시간 Duration	75분 (휴식 없음)
연령 Age guidance	초등학교 이상

“무용이 공연의 혁신, 그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La Veronal is a reminder that dance is often at the forefront of
the most innovative theatre”

— Gran Teatre del Liceu

몸으로 세상을 읽는 예술가, 마르코스 모라우가 그린 미래의 풍경

‘라 베로날’은 수면제에서 출발한 독특한 이름처럼, 안무가 마르코스 모라우의 실험적인 예술 정신을 담은 창작집단이다. 문학, 영화,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인 라 베로날은 지난 20여 년 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 창작 지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겨 왔다.

〈파시오나리아〉는 스페인어로 ‘열정의 꽃’을 의미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묘사한다. 감정이 메말라버린 풍경 속, 기계처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펼치는 여덟 명의 무용수들은 손에 잡힐 듯 다가오다 이내 흐릿한 액자 뒤로 사라진다. 모라우는 자칫 무겁고 어두운 소재를 특유의 윌트와 유머로 풀어나가며, 낯설지만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우리는 과연 사랑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 감정이 메마른 행성 파시오나리아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들이 낯설고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컨셉 및 연출
마르코스 모라우

제작 및 공연
라 베로날 컴퍼니

La Veronal & Marcos Morau
Pasionaria



라 베로날 컴퍼니 & 마르코스 모라우 죽음의 무도: 내일은 물음이다

일시 Date & Time	05. 17. 토 Sat 19:00
	05. 18. 일 Sun 19:00
가격 Ticket price	전석 30,000
시간 Duration	60분 (휴식 없음)
연령 Age guidance	16세 이상
장소 Place	GS아트센터 로비

죽음과 함께 추는 춤, 라 베로날만의 토텐탄츠
세상의 마지막 문턱에서 인간 생의 연약함에 바치는 환상극

‘죽음의 춤’이라는 뜻의 ‘토텐탄츠(Totentanz)’는 죽음의 공포를 떨치고자 미친듯이 춤을 추었다는 중세 말의 은유적인 알레고리로, 서양 문화예술 전반에 강렬한 흔적을 남겨왔다. 오늘날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아티스트 마르코스 모라우와 그의 컴퍼니 라 베로날은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의 형태로 수백 년 전 의식을 현대적 언어로 소환한다. “삶의 연약함에 대한 찬미와, 가치를 상실한 삶에 대한 묵상”을 제안하는 모라우는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죽음과 손잡고 자기 앞의 생을 마주하게 한다.

〈죽음의 무도: 내일은 물음이다〉는 어둠이 내린 GS아트센터 로비에서 예술을 새롭게 감각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공연장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이 곳은 어디인지, 또 어디로 향하는지, 배우와 관객의 구분은 이내 사라지고 어둠 속 길을 잃은 이들의 운수가 지금 시작된다.

The Dance of Death, part of medieval iconography, is an allegory that has left a strong impression across Western arts and culture including painting, literature, theatre and cinema. In La Veronal's own Totentanz, Marcos Morau summons the ritual from more than five centuries ago using contemporary vocabularies in the forms of installation, video and performance. Suggesting that we “celebrate the fragility of life and meditate on how it has lost value,” Morau invites us to take the hand of death and confront the life in front of us.

At the lobby of GS Arts Center where darkness has descended, *Totentanz—Morgen ist die Frage* offers a way to perceive art in a new way, exploring new possibilities of a performing space. Who we really are,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headed—the boundary between performer and spectator is blurred and the ronde begins, by those lost in the darkness.

컨셉 및 연출
마르코스 모라우

제작 및 공연
라 베로날 컴퍼니

La Veronal & Marcos Morau
Totentanz—Morgen ist die Frage





Signor PODESTA

CARIC

GS아트센터 x 서울재즈페스티벌
브래드 멜다우, 크리스천 맥브라이드, 마커스 길모어



PRIVATE CURVE

일시 Date & Time	05. 20. 화 Tue 19:30
가격 Ticket price	VIP 132,000 R 110,000 S 99,000 A 77,000
시간 Duration	90분 (예정)
연령 Age guidance	초등학생 이상

울스타 트리오가 선사하는 특별한 콘서트

재즈계의 올라운더,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 베이스리스트 크리스천 맥브라이드, 드러머 마커스 길모어가 트리오로 모여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현대 재즈 피아노계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친밀한 목소리의 소유자이자 '지난 20년 간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브래드 멜다우, 그래미상 9회 수상에 빛나는 베이스리스트이자 작곡가, 밴드 리더로 장르 경계를 넘나들며 항상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크리스천 맥브라이드, 끊임없이 리듬을 확장하며 다양한 협업으로 주목받는 드러머이자 작곡가인 마커스 길모어. 이들이 함께 모여 화려한 테크닉으로 빛어내는 리듬과 멜로디의 향연이 펼쳐진다.

Three of the greatest artists in jazz today—pianist Brad Mehldau, bassist Christian McBride, and drummer Marcus Gilmore—come together as a trio to present a special performance. Brad Mehldau, one of the most lyrical and intimate voices in contemporary jazz piano, is widely regarded as “the most influential jazz pianist of the last 20 years.” Christian McBride, a nine-time Grammy-winning bassist, composer, and bandleader, is known for his ability to transcend genre boundaries, constantly challenging himself and venturing into new musical territories. Marcus Gilmore, a drummer and composer who continuously expands rhythmic possibilities through his collaborations, has become one of the most dynamic figures in modern jazz. Together, they create a thrilling celebration of rhythm and melody, showcasing their extraordinary technique in this one-of-a-kind performance.



GS아트센터 x 서울재즈페스티벌
팻 메시니 드림 박스/문다이얼 투어



PRIVATE CURVE

일시 Date & Time	05. 23. 금 Fri 19:30
	05. 24. 토 Sat 18:00
	05. 25. 일 Sun 18:00
가격 Ticket price	VIP 154,000 R 132,000 S 121,000 A 99,000
시간 Duration	90분 (예정)
연령 Age guidance	초등학생 이상

재즈계의 거장이 빛어내는 무대

그래미 어워드 20회 수상에 빛나는 재즈 아티스트, 팻 메시니가 자신만의 색을 입힌 투어 ‘드림 박스/문다이얼’로 돌아온다. 솔로 기타, 소규모 앙상블, 일렉트릭 및 어쿠스틱 악기부터 대규모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구사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음악성으로 재즈계의 지평을 넓혀온 팻 메시니. 그는 최정상급의 위치에 오른 이후에도 신인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예술 비전을 끊임없이 확장해 온 재즈계의 진정한 혁신가이자 선구자이다. 팻 메시니는 이번 서울 공연에서 그간 컴퓨터에 고이 간직해온 곡들을 꺼내어 선보인다. 지금까지의 어떤 공연과도 다른, 거장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20-time Grammy-winning jazz artist Pat Metheny returns with his distinctive tour Dream Box/MoonDial. A master of diverse musical genres—Pat Metheny has continually pushed the boundaries of jazz with his unparalleled musicality. As a true innovator and pioneer in jazz, he has consistently advanced his artistic vision, even after reaching the pinnacle of his career, through collaborations with emerging artists. In this special performance in Seoul, Pat Metheny will unveil tracks he has kept in a forgotten folder on his computer for years, offering an experience unlike any other. This unique performance promises to be a rare opportunity to immerse yourself in the incomparable musical world of a living legend.



GS아트센터 × 국립발레단 킬리안 프로젝트

일시 Date & Time	06. 26. 목 Thu 19:30
	06. 27. 금 Fri 19:30
	06. 28. 토 Sat 15:00
	06. 29. 일 Sun 15:00
가격 Ticket price	R 100,000 S 80,000 A 60,000
시간 Duration	80분 (휴식 1회)
연령 Age guidance	초등학생 이상

“나를 매료시키는 것은 바로 경계
It is this border which fascinates me”

— Jiří Kylián

현대무용의 살아있는 신화, 이어리 킬리안
꿈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되는 안무의 연금술

음악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으로
우아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담아내며 컨템포러리
발레의 새로운 지평을 연 안무가, 이어리 킬리안.
국립발레단이 그의 젊은 시절 걸작 세 편을 한
무대에 올리는 〈킬리안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금번 국내 초연하는 〈Falling Angels〉는
스티브 라이히의 미니멀한 곡 위에서 규율과
자유, 소속과 탈출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선을 섬세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Forgotten Land〉는 벤자민 브리튼의
진혼 교향곡에 맞춰 흔적과 기억이 깃든 땅이
파괴되고 망각되는 순간을 조명한다. 〈Sechs
Tänze〉는 모차르트의 독일 무곡을 바탕으로
우리를 둘러싼 역경을 유머와 위트로 풀어내는
익살스러운 작품이다. 지난 2019년
〈이브닝 갈라〉에 이어 킬리안과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국립발레단이 더욱 깊어진 움직임과
섬세한 해석으로 거장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그려낸다.

협찬
삼성화재 KB 금융그룹 몽베스트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제작 및 공연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Choreographer Jiří Kylián, who
conveys the exquisite harmony of
intricate movements and music as
well as of elegance and powerfulness,
has opened up the new horizon of
contemporary ballet. *Kylian Project*
by Korean National Ballet presents
a collection of three masterpieces
by Kylian from his younger years.

Falling Angels, which newly enters the
company's repertoire, uses Steve Reich's
minimalistic music to create a powerful
yet delicate portrayal of the emotional
journeys of dancers. *Forgotten Land*,
accompanied by Benjamin Britten's
Sinfonia da Requiem, reflects on the
destruction and oblivion of the earth,
where our memories and traces are
inscribed. *Sechs Tänze* is a playful
piece based on Mozart's German dance
that examines the irony of human
essence with humor and satire.

Forgotten Land (26분)
작품 컨셉 및 안무. 이어리 킬리안
음악. 벤자민 브리튼. 진혼 교향곡, Op. 20

Falling Angels (15분)
작품 컨셉 및 안무. 이어리 킬리안
음악. 스티브 라이히. 드러밍(파트 I)

Sechs Tänze (15분)
작품 컨셉 및 안무. 이어리 킬리안
음악.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여섯개의 독일 무곡, KV 571

GS Arts Center X Korean National Ballet
Kylian Project



장르 경계 없는 작품으로 예술 경험을 확장해 온 창작가들 집중 조명 시리즈 “예술가들”

예술가들 패키지 20% 할인	정상가	→	할인가
-----------------	-----	---	-----

《시빌》	R석 430,000	344,000
《쇼스타코비치 10: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더라면》	S석 340,000	272,000
《아파나도르》	A석 250,000	200,000
《파시오나리아》		

윌리엄 켄트리지 패키지 15% 할인	정상가	→	할인가
---------------------	-----	---	-----

《시빌》	R석 220,000	187,000
《쇼스타코비치 10: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더라면》	S석 170,000	144,500
	A석 110,000	93,500

마르코스 모라우 패키지 15% 할인	정상가	→	할인가
---------------------	-----	---	-----

《아파나도르》	R석 210,000	178,500
《파시오나리아》	S석 170,000	144,500
	A석 140,000	119,000

할인

예술인패스 20%
청년 (2002년 출생 이후) 20%
장애인 (중증 1-3급) 50%
장애인 (경증 4-6급) 30%
국가유공자 30%

* 증빙서류 미 지참시 입장 제한

예매 안내

홈페이지

GS아트센터 www.gsartscenter.com

(예매 수수료 없음)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 공연 시작 2시간 전까지 예매 가능

전화

1670-2024 (연중무휴 9:00-18:00)

* 공연 시작 2시간 전까지 예매 가능

현장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잔여석에 한해 판매

GS아트센터

0614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대표번호 02-2005-0101

(월-금, 9:00-18:00)

info@gsartscenter.com

GS아트센터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과 예술 사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서울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GS아트센터는 일상과 예술이 교차하는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이다.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재즈, 미디어 아트, 복합극에 이르는 다양한 동시대 예술 장르를 구현하기 위한 1,200석의 전문 공연장 설비와 스텝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연장 안팎에서 공연뿐 아니라 전시, 팝업 이벤트, 교육 등 연중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도시의 빌딩숲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오피스 빌딩인 GS타워와 연결되어 문화 공간과 편의 시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경계 없는 예술, 경계 없는 관객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이곳에서는 예술 장르 간 경계 없는 작품들이 소개된다. 다양한 동시대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예술 경험과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경계 없는 예술과 함께 경계 없는 관객이 자라난다.

GS그룹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GS아트센터는 GS그룹 출범 20주년을 맞아 2025년 4월 24일 개관하며, 그룹의 지원 하에 GS문화재단이 운영한다.



